

## [특별기고]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송만석 장로 / 2003 / 페이지 수: 1

4월은 과학의 달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은 동물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이 있다. 그 중에서 과학의 달에 걸 맞는 특징으로 지적인 능력과 호기심을 들 수 있다.

개나 원숭이 등 동물도 약간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이해하는 명령어의 수 같은, 눈에 보이는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시킨다 해도 개나 원숭이가 시나 소설을 쓰거나 방정식을 풀 수는 없다. 다시 말해 사람의 지적인 활동과 차이가 너무 큰, 완전히 다른 수준인 것이다.

사람의 사고 속에는 측정이 거의 불가능한 요소들이 있다. 이 요소들이 측정 가능한 요소들을 사용할 때 지휘관 노릇을 한다. 호기심을 예로 들어 보자. 개나 원숭이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도는지,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지 궁금해 하지 않는다. 컴퓨터 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계산 분류, 검색 등 측정 가능한 여러 능력에서 사람을 앞서고 있지만, 컴퓨터는 언제 어떤 능력을 써야할지 모른다. 그 이유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 창조의 진서를 알고 싶어 했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호기심으로 인해 기독교권인 서양에서 과학기술이 크게 발전했다. 그런데 물질을 변화시키고 사용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확대되면서 유용성과 신뢰도의 차원을 벗어나 거의 절대적인 권위가 과학에 부여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가 아닌 사람들도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고 싶을 때 과학을 앞세우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과학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말해주는 대로 맹목적으로 믿는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궁금해 하고 생각해 보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의 정신이다. 초대교회 시절,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사도행전 17장 11절). 창조 세계의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상고할 때 하나님께서 무척 기뻐하실 것이다.

<송만석 장로 / 한국창조과학회장>

\* 출처 : 온누리신문